문단 구분과 읽기의 상관관계 연구*

서 종 훈**

< 次 例 >

Ⅰ. 들머리
Ⅱ. 연구방법 및 연구가설
Ⅲ. 연구결과 및 교육적 의의
Ⅳ. 마무리

Ⅰ. 들머리

1. 연구목적

읽기는 독자와 필자의 끊임없는 대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 대화의 과정을 매개하는 것이 바로 덩잇글이다. 독자는 덩잇글을 통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구하게 된다. 즉 독자는 자구적 읽기에서부터 비판과 창조의 과정까지의 읽기 과정을 모두 덩잇글을 통해 이루게 된다.

그렇다면 끊임없는 해석의 실타래를 제공하는 이런 덩잇글의 구조적 속성에 대해 한번쯤 의문을 가져볼 만하다. 문단은 이런 덩잇글의 구조적 속성에 기여하는 주요한 단위라 할 수 있다. 이는 덩잇글에 의미적, 혹은 형식적으로 모두 관여한다.

* 본 연구는 2010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하지만 문단이라는 단위가 이와 같이 읽기에서 주요한 전략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읽기교육에서 그 단위의 심리적 실재에 대한 엄밀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주로 학교 현장에서 문단은 쓰기에서의 소주제 구성단위로만 주로 사용되어 왔으며, 읽기에서도 이런 맥락에서 다루어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문단은 덩잇글의 주요한 단위로 의미, 형식단위로 다루어져 왔지만, 정작 그것이 읽기와 관련해서 얼마나 유효한 단위로 취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엄밀한 검증이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없다. 이는 국어교육에서 문단이라는 단위를 일본을 거쳐 들어온 서양 수사학의 전통적인 맥락에서 그 본질적 속성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1)]

본고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과연 읽기에서 문단이 얼마만큼 유효성, 혹은 실효성이 있는 단위인지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읽기의 주요한 전략이라 할 수 있는 핵심어와 핵심문장 파악을 문단 구분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시켜 그 상관관계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논의한다. 아울러 이 조사는 다양한 수준과 연령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학습자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자각과 이의 결과를 토대로 현장 조사 연구의 기반을 닦는 데 그 주요한 목적이 있다.[2)]

---

1) 수사학의 전통에서 다루어진 문단의 구조적인 속성은 정달영(1997)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아울러 정제한(2002)에서도 한 문단의 구조적 속성을 텍스트 언어학적 접근 방법을 통해 살피고 있지만, 이 역시 한 문단의 구조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문단의 심리적 실재의 파악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2) 김지홍(2010)에서는 학습자들의 언어와 언어사용의 자각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 참고가 된다.

2. 선행연구

문단에 대한 학습자들의 다양한 인식의 반응을 이끌어낸 연구는 국내에서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아울러 기존의 문단과 관련된 연구는 서양 수사학의 틀에서 기초한 규범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문단에 대한 연구의 틀을 매우 좁혀 놓고 말았다. 본 연구에서는 문단에 대한 규범적인 연구의 틀을 벗어나 문단의 심리적 실재를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한 논의를 참고하였다.

김정호 외(1990)와 김정호(1993)은 문단 구획의 여부가 읽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심리적 관점에서 조사한 논의들이다. 문단 나누기가 설명글의 기억 여부에 미치는 영향 및 글의 표제와 글의 구획의 상관관계를 이해와 기억의 틀에서 다루고 있다. 제한된 글의 갈래와 독자 이해의 다양한 측면을 배제하고 단순 기억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문단의 이해와 관련된 심리적 실재의 측면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Koen, F. Becker, A. Young, R.(1969)는 문단의 심리적 실재를 수사학이 아닌 심리적 관점에서 다룬 고전적 논의이다. 세 가지 실험을 통해 학습자들의 문단 경계의 동의 비율, 문단 구조의 유의미한 단서들이 형식적인지의 여부, 문단을 구성하는 능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문단의 심리적 실재에 대한 매우 기초적인 확인 조사로 그 의미가 높지만, 비논리적인 글감을 정상적인 글감의 비교 기준 자료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실험 결과의 유의미성에 다소 신빙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드러낸다.

Ji, Shaojun(2008)은 이야기글에서 문단 구획 요소가 무엇인지를 밝히려는 데 초점을 둔 논의이다. 여기에서는 시간, 장소, 등장인물, 화제, 그리고 화제 전환의 주제적 불연속선상에서 문단 구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수의 이야기글을 대상으로 검증하고 있다. 이야기글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단의 생성과 구조의 보편성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문학글에서 문단의 정체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Wang, Danhua(2009)는 문단을 지엽적 의미연결(local coherence)의 주요한 개념 구성 차원에서 다루고 있어 참고가 된다. 문단은 지엽적 의미연결과 총체적 의미연결(global coherence)의 매개 단위로 사용될 수 있는데, 단지 텍스트 구조만을 총체적 의미연결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단 단위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Ⅱ. 연구방법 및 연구가설

1. 연구방법

1) 조사개관[3]

문단 구분의 실효성이나 유효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우선 문단이라는 단위의 실재성 파악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덩잇글을 읽는 과정상에 학습자들은 필연적으로 덩잇글의 전체 주제를 상정하고, 이를 자신의 배경지식과 결합하여 재구성한다. 이 과정에 문단은 전체 주제를 구성하는 낱낱의 소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문단은 기본적으로 핵심이 되는 문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문장으로 구성되는 단위이다.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문장은 소주제라고 불리며, 덩

3) 익명의 심사자께서 실험에 사용된 덩잇글과 피실험자의 유형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덩잇글과 관련해서는 문단 구분이 어려운 글에 대한 사용을, 피실험자와 관련해서는 초등학생의 포함 문제를 언급했다. 좋은 지적 사항이며, 차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잇글의 전체 주제의 하위 중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읽기 과정에서 소주제는 덩잇글의 전체 주제를 뒷받침하는 주요한 구성요소들이라 할 수 있으며, 문단은 그런 주요한 하위 내용들을 형식상으로 감싸는 단위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분명 문단은 소주제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게 될 것이고, 이는 직·간접적으로 표면화될 수 있다. 이런 표면화될 수 있는 주요한 요소가 바로 핵심문장 혹은 핵심어라 할 수 있다.[4] 독자가 덩잇글의 전체 주제를 한 번에 도출하거나 상정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으로 문단과 관련한 소주제 등을 재구성하여 전체 주제로 도출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즉, 문단이 읽기 과정에 유효한 수단이나 전략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문단 그 자체만을 형식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핵심문장이나 핵심어를 관련시켜 부각시킴으로써 문단이 읽기 과정에서 전체 의미나 주제를 구성하는 데 분명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문단의 구분 여부가 핵심문장이나 핵심어의 파악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지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핵심문장이나 핵심어는 덩잇글의 전체 주제를 구성하는 주요한 의미소들이다. 이와 같은 의미소는 문단을 중심으로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다. 그렇다면 학습자들은 문단이 구분된 글에서 핵심문장이나 핵심어를 각 문단을 중심으로 보다 잘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문단이 구분되지 않은 글에서는 핵심문장이나 핵심어를 각 문단 중심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문단의 구분 여부가 학습자들의 읽기

---

4) 조사 대상 학습자들에게 조사 자료를 제시할 적에는, "핵심이 되는 문장(들)", "핵심이 되는 단어들"로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에게 제시한 자료는 이하 <그림 1~3>을 참조하기 바람.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문단이라는 단위를 각 문단의 핵심문장을 파악하거나 핵심어를 일정하게 도식화시키는 것과 관련시키는 것이다.[5]

이상의 두 가지 방법은 수준이나 연령을 달리하는 다수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그 여부를 파악해야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중학교 2·3년 학습자 147명,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 140명, 대학교 1·2학년 학습자 124명을 대상으로 이상의 문제를 다루었다.

중학교 대상자들은 소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전국 평균 정도 수준의 학습능력을 지니는 학습자들이며,[6] 고등학교는 수능 모의고사 1등급에서 8등급 대에 적절하게 분포하고 있는 일반 인문계 학습자들이며, 대학교의 경우는 수능 2등급 안팎과 3등급에서 8등급까지의 학습자들이 골고루 포함된 지방의 한 사립대학교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7] 이상의 점들을 개관하면 <표 1>과 같다.

---

5) 이 두 가지는 결국 덩잇글의 중심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한 요소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다만 여기에서 중심내용의 지니는 의미 범주는 다양할 수 있다. 문선모역(1995, pp.9~10)에서는 이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 참고가 된다.

6)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대략적으로 추정한 것이다.

7) 2등급 내외의 학습자들은 대학에서 특별히 우수한 학습자들을 유치 위한 방편의 하나로, 장학금이나 기숙사 혜택을 받고 들어온 일부 특정 학과의 대상자들이다.

〈표 1〉 조사개관

대상/자료 / 조사 요소	대상자			
	자료A		자료B	
	문단 구분 됨	문단 구분 안 됨	문단 구분 됨	문단 구분 안 됨
조사대상	중학교 2·3학년(147명)			
조사인원	75명	72명	75명	72명
조사시기	2010.2.8~ 2010.2.10	2010.2.8~ 2010.2.10	2010.2.8~ 2010.2.10	2010.2.8~ 2010.2.10
조사대상	고등학교 2학년(140명)			
조사인원	68명	72명	68명	72명
조사시기	2010.2.10~ 2010.2.11	2010.2.10~ 2010.2.11	2010.2.10~ 2010.2.11	2010.2.10~ 2010.2.11
조사대상	대학교 1·2학년(124명)			
조사인원	61명	63명	61명	63명
조사시기	2010.3.8~ 2010.3.12	2010.3.8~ 2010.3.12	2010.3.8~ 2010.3.12	2010.3.8~ 2010.3.12

2) 조사자료

조사자료는 두 편을 선정하였다. 각 문단의 핵심어와 핵심문장이 표면적으로 쉽게 부각될 수 있는 글을 선정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에게 문단 구분의 여부가 읽기의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도록 의도된 것이다. 아울러 문단의 구분 여부가 문학적인 글에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비문학적인 글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8] 지면상의 제약으로 두 편의 글은 이하 연구결과 논의의 절에서 상세하게 제시한다.

---

8) Ji, Shaojun(2008, p.1728)에서는 이야기 덩잇글의 문단 구분은 시간, 공간, 인물, 화제, 목표의 주제상 불일치 혹은 단절의 견지에서 유형화될 수 있음을 제기하고 있어 문학글, 특히 서사문의 문단 구분에 대한 좋은 참고가 된다.

2. 연구가설

연구가설은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두 가지 모두 문단의 구분 여부가 읽기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를 관찰하기 위해서 구성되었다. 즉 문단 구분이 된 글과 그렇지 않은 글의 읽기 수행 결과에 차이가 있다면 이는 분명 문단의 구분이 읽기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연구가설1 : 문단 구분 여부가 읽기에 차별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연구가설1은 문단의 구분 여부가 읽기의 과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상정한 것이다. 이는 학습자들이 문단이 구분된 글과 그렇지 않은 글을 읽을 때 분명한 차이가 드러날 것이라고 점과 관련된다. 즉 문단 구분 여부에 따라 학습자들의 읽기 결과가 다르며, 이는 덩잇글의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핵심문장, 핵심어의 선택에 영향을 줄 것이다.

문단의 구분 여부가 읽기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면 문단은 그야말로 인쇄상의 표면적인 단위로밖에 볼 수 없다. 문단은 수사학에서 기본적으로 의미의 구성 단위로 다루어져 왔고, 이는 학교 현장의 읽기, 쓰기 교육에서 주요한 사고 단위의 첫 구성 단위로 다루어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분명 이 점은 문단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본 가설은 문단의 심리적 실재에 대한 파악의 문제를 읽기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접근해 본 것이다. 단순하게 문단의 심리적 실재를 단순한 의미덩이 형식으로 파악하기보다는, 문단을 구성하는 가장 주요한 의미소인 핵심문장과 핵심어를 관련시켜 그것의 심리적 실재를 학습자들이 파악하도록 하였다.

즉, 여기서는 학습자들은 문단 구분이 된 글에서 핵심어나 핵심문장을

더 쉽게 파악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문단 구분 여부가 핵심어나 핵심문장을 더 쉽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나아가 덩잇글의 주제를 구성하는 데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점과 부합한다.

연구가설2 : 학습자의 수준과 연령이 높을수록 문단 구분과 읽기수행 간의 상관관계가 줄어들 것이다.[9]

연구가설2는 문단 구분은 학습자의 연령과 그에 따른 수준의 변화에 따라 문단 구분이 주는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과 관련된다. 이는 읽기에서 문단 구분이 분명 읽기에 있어 지니는 영향력은 있지만, 학습자들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문단이 주요한 읽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문단은 덩잇글을 이루는 부분이다. 물론 그 자체의 의미완결성 측면에서 전체로서의 속성도 지니다. 하지만 분명 덩잇글의 의미상의 일부를 이루는 부분임에 분명하다. 이는 덩잇글의 주제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분명 문단 간의 의미연결에 초점이 모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

언어 수행의 수준이 높을수록, 즉 학령대가 높아지고 학습자들이 지니는 배경지식이 늘어날수록 덩잇글 전체를 보는 관점이 발달해간다고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 수행 수준이나 학령대가 낮은 학습자일수록 부분에 집착하여 읽을 가능성이 많으며, 따라서 문단 구분 여부는 더 밀접하게 읽기 과정과 관련을 맺을 것이다.

즉, 언어 수행의 수준과 학령대가 높은 학습자일수록, 문단이라는 인쇄상 혹은 표면상의 구분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배경지식

9) 본고에서는 엄밀하게 동일 연령 내 학습자들의 수준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다만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즉 학령이 상승함에 따라 덩잇글을 보는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보았다.

이나 다양한 언어적 단서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는 문단이 구분되지 않은 글에는 더 적극적으로 이용되어, 문단 구분이 주는 읽기 과정상의 이점을 극복하는 데 일부분 기여할 수 있다.

Ⅲ. 연구결과 및 교육적 의의

1. 연구결과 논의

핵심어와 핵심문장의 적절한 선택이 문단 구분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일정한 통계 절차를 이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려고 한다. 우선 학교 현장에서 드러나는 학습자들의 다양한 언어 수행 양상의 결과를 단순한 양적인 수치로만으로는 헤아리기 힘들기 때문에 질적인 접근 방법 등을 통해 그 결과를 해석할 것이다.

앞선 언급하였듯이 핵심어와 핵심문장 파악은 덩잇글의 이해에 필수불가결한 변수이다. 물론 핵심어와 핵심문장만으로 덩잇글을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핵심어와 핵심문장들이 지니는 의미소가 결국 덩잇글 전체의 주제를 구성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임은 부인할 수 없다. 이를 위해 학습자들의 문단 구분 여부에 따른 핵심어와 핵심문장 파악의 결과를 일정한 기준 하에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평가 기준 내역 상의 점수는 상·중·하로 평가하여, 각각 3·2·1점으로 부여하였다. 점수를 지나치게 세분화하면 학습자들의 언어 수행 결과 그 자체를 살피기보다는 평가 점수를 매기는데 오히려 초점을 둘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간략하게 3단계 척도로만 접근하였다. <표 2>는 학습자들의 수행 결과를 점수로 매기기 위해 그 기준 내역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표 2〉 평가 기준 내역

기준 / 점수	평가 기준 내역	
	핵심어 파악	핵심문장 파악
3(점)	· 핵심어가 정확하게 선택됨 · 일정한 도식으로 덩잇글을 표상함	· 문단 중심으로 핵심문장들에 밑줄이 그어짐
2(점)	· 핵심어의 선택이 다소 부적절함 · 도식화가 덩잇글의 구조와 다소 거리가 있음	· 핵심문장들이 선택되었으나 불필요한 문장들이 더해졌거나, 혹은 필요한 문장들이 빠져 있음
1(점)	· 핵심어의 선택이 적절하지 못함 · 도식화가 이루어지지 못함	· 핵심문장들이 제대로 선택되지 못함

조사 대상의 학습자들이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골고루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데 일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조사를 실시한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우선 점수 기준 내역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필자와의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10] 아울러 학습자들에게 자료를 제시할 적에는, 제목은 삭제하여 제시하였다. 제목이 덩잇글의 읽기에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였다.

첫 번째 글은 '일상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의 차이를 일정한 개념 분류에 따라 제시한 글이다. 문단 구분에 있어 일정한 담화표지들이 사용되고 있어 핵심어나 핵심문장을 지적하기에 용이한 글이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자료A라고 칭한다.

10) 이상의 조사를 실시한 교사들은 중등학교 교사 경력이 10년이 넘는 석사 이상의 국어교사들이다. 현장조사에서부터 평가까지 성실하게 참여해 주신 두 분의 선생님께 감사를 드린다.

점수를 부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두 편의 자료에 대한 핵심어와 핵심 문장들의 분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학습자들의 수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조사에 참여한 세 사람의 국어교육 전문가들이 자료를 돌려 읽고 파악한 결과이다. 이를 위해 문단이 구분된 원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A에서는 3문단~5문단에 제시된 핵심 용어에 대한 정의에 밑줄을 그을 것인가에 대해 약간의 논의가 있었는데, 덩잇글의 핵심용어로 그 의미값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핵심문장으로 다루었다. 아울러 핵심어는 기울임과 진하게 표시된 용어들이다.

일상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자료A)

'과학적'이라는 말에는 우리의 앎을 개선하기 위한 의식적이고 비판적인 작업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과학적 지식'은 우리의 앎을 보다 나은 것으로 만들어 나가려는 의식적 노력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학적 지식***은 ***일상적 지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물체가 떨어지는 현상'에 관한 지식을 예로 들어서 이를 확인해 보자.

물체가 떨어지는 현상과 관련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 지식은 '무거운 물체는 빨리 떨어지고 가벼운 물체는 느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응하는 초보적인 과학적 지식 중의 하나는 갈릴레이가 말한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그 질량과 무관하게 일정한 가속도를 지니고 낙하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지식은 정밀성, 확실성, 보편성의 기준에서 볼 때 차이를 보인다.

먼저 '***정밀성***'은 정교하고 치밀하여 빈틈이 없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에 제시된 상황과 관련하면 빠르면 얼마나 빠른지, 또는 느리면 얼마나 느린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이 경우에 일상적 지식은 '아주 빠르다', 또는 '약간 빠르다'와 같이 부사를 적절히 구사하여 개략적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과학적 지식은 이를 수치화하여 서술함으로써 어떠한

미세한 차이도 모두 표현해 낼 수 있도록 만든다.

다음으로 '***확실성***'은 진술이 사실과 얼마나 잘 부합하는가의 정도를 말한다. 일상적 지식에서는 대개 몇 개의 사례만 보고 부주의하게 일반화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과학적 지식은 다양한 사례를 끊임없이 조사하고 실험하는 검증의 절차를 통해 얻어지며, 대립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계속 수정해 나간다. 따라서 일상적 지식에 비해 확실성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에 두루 미치는 정도인 '***보편성***'에 대해 살펴보자. 위에서 언급한 일상적 지식은 설혹 확실성을 갖는 경우라도 다른 지식과 연관성을 맺지 못하면 고립된 지식이 된다. 즉, 이 지식을 가지고 달에 가서 동일한 주장을 할 수 없으며, 또 이 지식을 달이 지구를 도는 이치와 연관지을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학적 지식은 과학이라는 체계 속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위에 제시한 지구상의 낙하에 관한 과학적 지식은 고전 역학을 통해서 달에서의 낙하와 연관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달이 지구를 도는 현상과도 연관지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과학적 지식은 일상적 지식에 비해 정밀성, 확실성, 보편성이 뛰어나다. 이것은 과학이 우리의 앎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지식을 보다 정밀하고 보다 확실하며 보다 연관성이 넓은 지식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앎'이 내용(정보)과 그것을 담는 형식(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일상적 지식은 그 내용의 증가 과정과 관련된 것이고, 과학적 지식은 형식의 향상과 향상된 형식 안에 내용을 담아 가는 과정을 총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글은 '단어의 정확한 사용'에 관한 것이다. 각 문단의 시작에는 앞선 자료A보다 더 분명한 담화표지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학습자들로부터 핵심문장이나 핵심어 선택에 있어 보다 분명한 인식상의 수반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마지막 문장은 전체 덩잇글의 내용을 명확하게 요약하고 있어 전체를 핵심문장으로 선택하였다. 핵심어 선택에

있어서는 '단어' 자체만으로는 덩잇글의 내용을 적절하게 표상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구(phrase)로 선택하였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자료B라 칭한다.

단어의 정확한 사용(자료B)

단어는 말과 글을 이루는 직접적인 재료이다. 의사소통의 단위로서 단어가 갖는 지위는 건축물의 벽돌에 비유할 수 있다.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집을 짓기에 적절한 벽돌을 만드는 일과 그 벽돌을 용도에 맞추어 사용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른바 "말이 안 된다."라는 표현을 단어의 측면에 적용하면 단어의 구성에 흠이 있거나 단어의 용도에 잘못이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정확한 단어의 사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단어의 구성***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이것은 곧 단어가 규범에 맞고 조어론적으로 이상이 없어야 함을 뜻한다. 편찬된 사전이나 언중의 머릿속 사전에는 수많은 어휘가 저장되어 있다. 이러한 어휘 창고에서 규범에 맞지 않거나 조어법에 어긋난 단어, 또는 기존의 형태소나 단어를 이용하여 신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결함이 있는 단어는 단어로서의 정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된다.

우선 규범에 맞는 단어란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지킨 단어를 말한다. 예를 들어 '굳이'는 한글 맞춤법의 규정에 따라 규범적인 단어인 반면, '구지'는 규범에 벗어난 단어가 된다. 또한 '사글세'는 표준어 규정에 따라 규범적인 단어이지만, '삭월세'는 규범에 어긋난 단어가 된다. 다음으로 조어론적으로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합성어나 파생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유의어나 유의적 요소의 일부가 중복되거나 피동형이 중복 구성되어서도 안 되며, 또 고유어에 접미사 '-적(的)'을 남용하는 것도 조어법에 어긋난 경우가 된다. 그리고 우리말과 외국어를 섞어 쓰는 일, 지나치

게 축약하여 원래의 단어 의미를 파악할 수 없게 하는 일, 비표준어를 사용하는 일 등도 모두 조어법에 어긋난 것이 된다.

둘째, ***단어의 의미***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표현하려는 대상이나 개념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단어를 모르거나 잘못 사용하는 사례를 경험한다. 예를 들면, '처마 끝의 둥근 마구리가 달린 수키와'를 두고 '막새'라는 단어를 몰라서 '기와'라고 하거나, '학', '해오라기', '왜가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일이 있다. 단어를 의미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정확한 의사소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표현 의도에 맞추어 의미와 형태가 일치된 단어를 사용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셋째, ***단어의 용법***이 적절해야 한다. 단어를 사용할 때 실제 사용 장면에 적절하지 않으면 말이 되지 않는데, 이것은 통사적 적절성을 어겨 비문법적 문장이 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예를 들면, "붉게 공이 좋다."와 "제 부인과 함께 왔습니다."의 두 표현에서 전자는 '붉게'라는 단어가 통사적 적절성을 어긴 것인 반면, 후자는 '부인'이라는 단어가 잘못 사용된 것이다. 이 경우 전자에서는 통사적 성분 '붉게'를 '붉은'으로 바꾸면 문법성이 회복되며, 후자에서는 어휘적 성분 '부인'을 '아내'나 '집사람'으로 바꾸면 적절성이 확보된다.

요컨대, 단어의 정확한 사용이란 단어를 규범과 어법에 맞게 구성하고, 의미 및 화행적(話行的) 용법에 맞도록 부려 쓰는 일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는 일이야말로 언어생활을 바르게 하는 기초가 된다.

우선 중학교 학습자들의 수행 결과를 다루고자 한다. 결과는 4개 반 총 147명의 학습자들의 대상으로 한 것이다. 문단이 구분된 글과 그렇지 않은 글을 구분하여 결과를 제시한다. 4개 반 학습자들 각각의 점수 결과를 제시하기에는 지면상의 문제로 점수별 인원과 그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만을 제시한다. 학습자들 내의 언어수행 수준과 성별의 차이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중학교 2·3학년 학습자들의 반응 결과

내용 \ 자료		문단 구분 됨(75명)				문단 구분 안 됨(72)명			
		자료A		자료B		자료A		자료B	
		핵심어	핵심 문장	핵심어	핵심 문장	핵심어	핵심 문장	핵심어	핵심 문장
점수별 인원	3	19	4	9	25	4	3	5	9
	2	24	36	23	27	15	14	11	19
	1	32	35	43	23	53	55	56	44
평균		1.8	1.6	1.5	2.0	1.3	1.3	1.3	1.5
표준편차		0.65	0.35	0.49	0.64	0.33	0.28	0.35	0.50

문단이 구분된 자료와 구분되지 않은 자료의 평균 점수 차이가 0.2에서 0.5점 정도로 상당히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문단 구분의 여부가 덩잇글 이해의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핵심어와 핵심문장의 파악에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그와 같은 결과는 자료A, 자료B의 핵심어와 핵심문장 각각의 영역에서 모두 드러나고 있다.

중학교 학습자들의 언어 수행 결과를, 문단 구분 여부에 따라 자료B를 통해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이 자료에서 대다수 학습자들은 글의 제일 처음 문장에 밑줄을 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11] 이는 개념 정의와 같은 문구가 학습자들에게 매우 중요시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아래의 그림은 문단 구분 여부와 일정 점수에 따른 학습자들의 예이다.

11) 자료B에서 첫 문단의 첫째 문장으로 "단어는 말과 글을 이루는 직접적인 재료이다"라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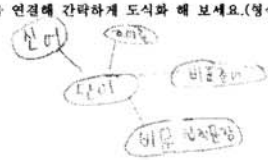
<그림 1> 문단 구분되지 않은 자료B 읽기 결과

(5)번, (15)번, 이름 : 김수린

단어는 말과 글을 이루는 직접적인 재료이다. 의사소통의 단위로서 단어가 갖는 지위는 건축물의 벽돌에 비유할 수 있다.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집을 짓기에 적절한 벽돌을 만드는 일과 그 벽돌을 용도에 맞추어 사용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른바 "말이 안 된다."라는 표현을 단어의 측면에 적용하면 단어의 구성에 흠이 있거나 단어의 용도에 잘못이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정확한 단어의 사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단어의 구성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이것은 곧 단어가 규범에 맞고 조어론적으로 이상이 없어야 함을 뜻한다. 편찬된 사전이나 연중의 어릿속 사전에는 수많은 어휘가 저장되어 있다. 이러한 어휘 창고에서 규범에 맞지 않거나 조어법에 어긋난 단어, 또는 기존의 형태소나 단어를 이용하여 신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결함이 있는 단어는 단어로서의 정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된다. 우선 규범에 맞는 단어란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지킨 단어를 말한다. 예를 들어 '굳이'는 한글 맞춤법의 규정에 따라 규범적인 단어인 반면, '구지'는 규범에 벗어난 단어가 된다. 또한 '사글세'는 표준어 규정에 따라 규범적인 단어이지만, '삭월세'는 규범에 어긋난 단어가 된다. 다음으로 조어론적으로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합성어나 파생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유의어나 유의적 요소의 일부가 중복되거나 파동형이 중복 구성되어서도 안 되며, 또 고유어에 접미사 '-적(的)'을 남용하는 것도 조어법에 어긋난 경우가 된다. 그리고 우리말과 외국어를 섞어 쓰는 일, 지나치게 축약하여 원래의 단어 의미를 파악할 수 없게 하는 일, 비표준어를 사용하는 일 등도 모두 조어법에 어긋난 것이 된다. 둘째, 단어의 의미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표현하려는 대상이나 개념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단어를 모르거나 잘못 사용하는 사례를 경험한다. 예를 들면, '치마 끝의 둥근 마구리가 달린 수키와'를 두고 '막새'라는 단어를 몰라서 '기와'라고 하거나, '학', '해오라기', '왜가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일이 있다. 단어를 의미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정확한 의사소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표현 의도에 맞추어 의미와 형태가 일치된 단어를 사용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셋째, 단어의 용법이 적절해야 한다. 단어를 사용할 때 실제 사용 장면에 적절하지 않으면 말이 되지 않는데, 이것은 통사적 적절성을 어겨 비문법적 문장이 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예를 들면, "붉게 공이 좋다."와 "제 부인과 함께 왔습니다."의 두 표현에서 전자는 '붉게'라는 단어가 통사적 적절성을 어긴 것인 반면, 후자는 '부인'이라는 단어가 잘못 사용된 것이다. 이 경우 전자에서는 통사적 성분 '붉게'를 '붉은'으로 바꾸면 문법성이 회복되며, 후자에서는 어휘적 성분 '부인'을 '아내'나 '집사람'으로 바꾸면 적절성이 확보된다. 요컨대, 단어의 정확한 사용이란 단어를 규범과 어법에 맞게 구성하고, 의미 및 화행적(話行的) 용법에 맞도록 부려 쓰는 일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는 일이야말로 언어생활을 바르게 하는 기초가 된다.

1. 핵심이 되는 문장(들)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2. 핵심 단어들을 연결해 간략하게 도식화 해 보세요.(형식은 자유)



위 <그림 1>은 핵심문장 줄긋기와 핵심어 도식화에서 모두 1점을 받은 학습자의 수행 결과이다. 문단이 구분되지 않아 중학교 학습자들이 읽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글이다.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학습자

가 전혀 문단의 상정하고 글을 읽었다고 보기 어렵고, 핵심어에 대한 도식화의 양상도 지엽적인 내용들의 연결에 국한되고 있다.

고등학교도 역시 4개 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반마다 학습자들의 숫자가 약간씩 차이가 있었고, 아울러 중학교 학습자들과 마찬가지로 각 반 학습자들의 언어 수행 수준에 대한 통제 및 성별의 차이에 따른 수행 양상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들의 반응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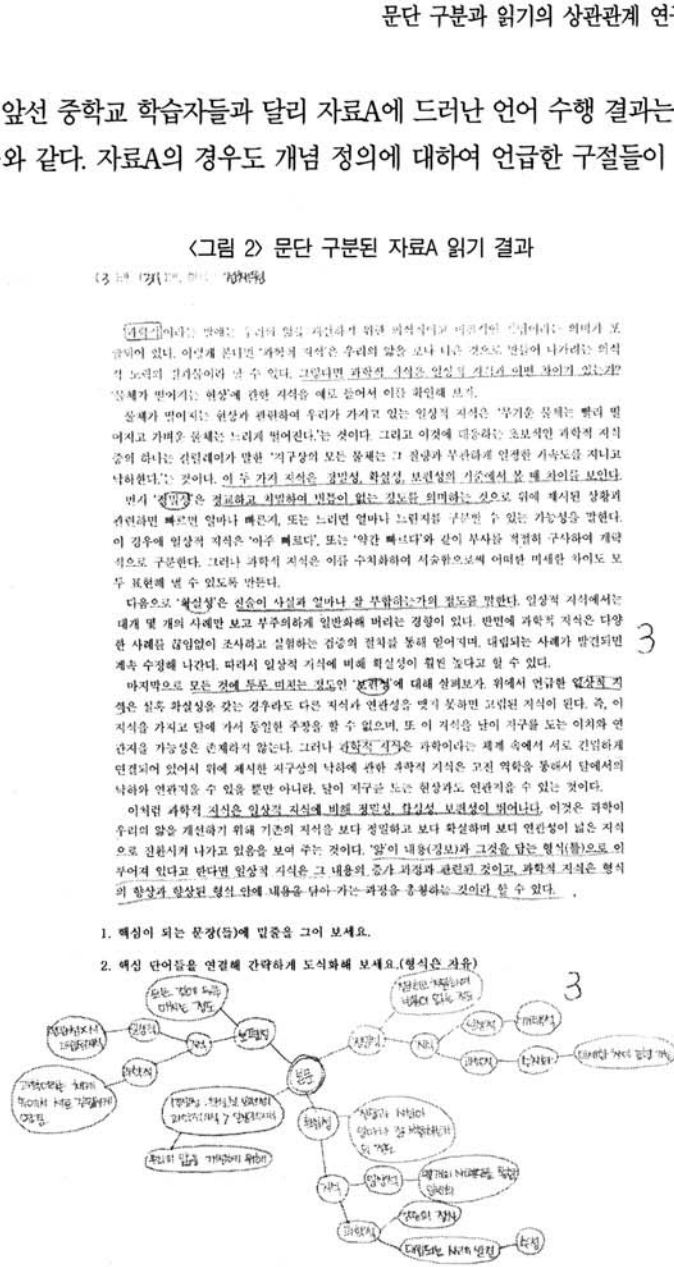
자료 / 내용		문단 구분 됨(68명)				문단 구분 안 됨(72)명			
		자료A		자료B		자료A		자료B	
		핵심어	핵심 문장	핵심어	핵심 문장	핵심어	핵심 문장	핵심어	핵심 문장
점수별 인원	3	44	27	36	32	20	21	32	26
	2	20	39	30	36	31	44	38	42
	1	4	0	2	0	21	7	4	5
평균		2.6	2.3	2.5	2.5	2.0	2.2	2.4	2.3
표준편차		0.36	0.24	0.31	0.25	0.57	0.35	0.36	0.35

중학교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 비해,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결과는 문단 구분의 여부에 따른 평균 점수의 차이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표준편차도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학교 학습자들의 결과에 비하여 줄어든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읽기 결과가 평균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평균상의 특이한 점은 특히 자료B의 경우는 자료A에 비해 차이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읽기 결과의 질적인 차이를 검증할 수 있는 평가 토대가 명확하게 구축되어야 하겠지만, 이는 글의 가독성과 관련하여 문단 구분 여부와 읽기 결과의 영향 관계는 덩잇글의 자료에 따라 다양하게 검증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앞선 중학교 학습자들과 달리 자료A에 드러난 언어 수행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자료A의 경우도 개념 정의에 대하여 언급한 구절들이 밑줄이

<그림 2> 문단 구분된 자료A 읽기 결과



1. 핵심이 되는 문장(들)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2. 핵심 단어들을 연결해 간략하게 도식화해 보세요.(형식은 자유)

쳐진 경우가 많았다. 이는 학습자들이 개념 정의가 덩잇글 주제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A의 경우 과학적 지식과 일반적 지식의 차이에 대한 설명글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발견되는 특징 중의 하나는, 문제 제기 형식의 주제문인 첫 번째 문단의 "그렇다면 과학적 지식은 일상적 지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구절에 밑줄이 그어진 경우가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대다수 학습자들이 의문문으로 제시되는 경우의 문장은 핵심문장으로 인식하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2>에서는 각 문단마다 핵심문장이라고 고려된 것들이 제대로 밑줄 그어져 있으며, 아울러 핵심어의 도식화도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드러났지만, 덩잇글 전체의 주요한 내용 측면을 잘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심문장과 핵심어와 관련성이 매우 밀접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이는 핵심 단어들의 도식화 양상이 매우 복잡하게 드러나는 양상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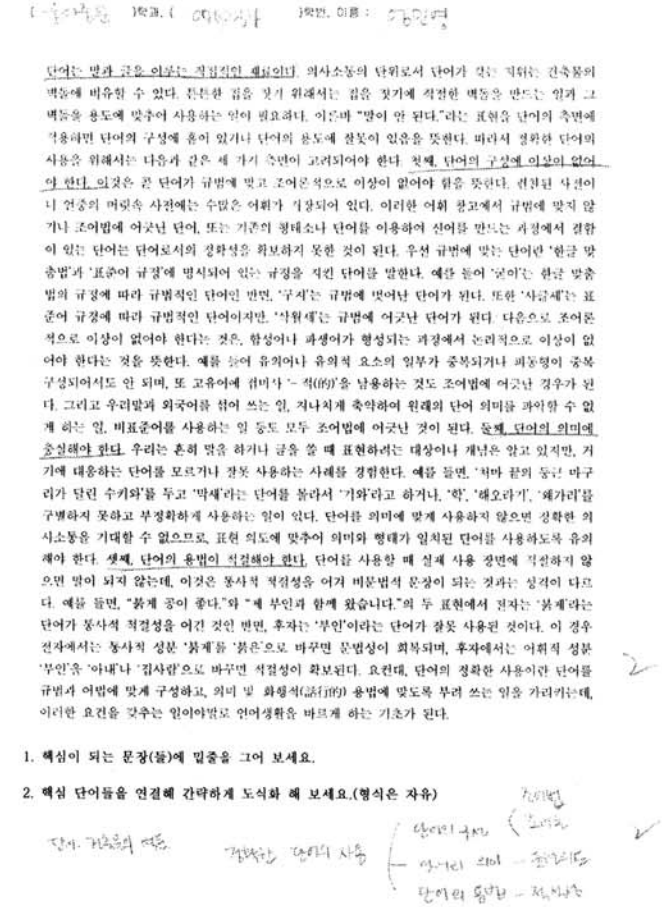
〈표 5〉 대학교 1·2학년 학습자들의 반응 결과

내용 \ 자료		문단 구분 됨(61명)				문단 구분 안 됨(63)명			
		자료A		자료B		자료A		자료B	
		핵심어	핵심 문장	핵심어	핵심 문장	핵심어	핵심 문장	핵심어	핵심 문장
점수별 인원	3	34	22	42	39	17	11	41	38
	2	26	36	14	22	31	43	20	23
	1	1	3	1	0	15	9	2	2
평균		2.5	2.3	2.5	2.6	2.0	2.0	2.6	2.6
표준편차		0.28	0.31	0.25	0.23	0.51	0.32	0.30	0.31

대학교 학습자들은 전공을 달리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앞

선 중·고등학교 학습자들과 마찬가지로 학습자들 내에서의 수준과 성별에 따른 수행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지는 않았으며, 전체 수능 등급을 기준으로 골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그림 3〉 문단 구분되지 않은 자료B 읽기 결과



단어는 말과 글을 이루는 적절적인 재료이다. 의사소통의 단위로서 단어가 갖는 지위는 건축물의 벽돌에 비유할 수 있다.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집을 짓기에 적절한 벽돌을 만드는 일과 그 벽돌을 용도에 맞추어 사용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른바 "말이 안 된다."라는 표현을 단어의 측면에 적용하면 단어의 구성에 흠이 있거나 단어의 용도에 잘못이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정확한 단어의 사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단어의 구성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이것은 곧 단어가 규범에 맞고 조어론적으로 이상이 없어야 함을 뜻한다. 권위된 사전이나 언중의 머릿속 사전에는 수많은 어휘가 저장되어 있다. 이러한 어휘 창고에서 규범에 맞지 않거나 조어법에 어긋난 단어, 또는 기존의 형태소나 단어를 이용하여 신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결함이 있는 단어는 단어로서의 정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된다. 우선 규범에 맞는 단어란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지킨 단어를 말한다. 예를 들어 '굳이'는 한글 맞춤법의 규정에 따라 규범적인 단어인 반면, '구지'는 규범에 벗어난 단어가 된다. 또한 '사글세'는 표준어 규정에 따라 규범적인 단어이지만, '삭월세'는 규범에 어긋난 단어가 된다. 다음으로 조어론적으로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합성어나 파생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유의어나 유의적 요소의 일부가 중복되거나 피동형이 중복 구성되어서도 안 되며, 또 고유어에 접미사 '-적(的)'을 남용하는 것도 조어법에 어긋난 경우가 된다. 그리고 우리말과 외국어를 섞어 쓰는 일, 지나치게 축약하여 원래의 단어 의미를 파악할 수 없게 하는 일, 비표준어를 사용하는 일 등도 모두 조어법에 어긋난 것이 된다. 둘째, 단어의 의미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표현하려는 대상이나 개념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단어를 모르거나 잘못 사용하는 사례를 경험한다. 예를 들면, '처마 끝의 둥근 마구리가 달린 수키와'를 두고 '막새'라는 단어를 몰라서 '기와'라고 하거나, '학', '해오라기', '왜가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일이 있다. 단어를 의미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정확한 의사소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표현 의도에 맞추어 의미와 형태가 일치된 단어를 사용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셋째, 단어의 용법이 적절해야 한다. 단어를 사용할 때 실제 사용 장면에 적절하지 않으면 말이 되지 않는데, 이것은 통사적 적절성을 어겨 비문법적 문장이 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예를 들면, "붉게 공이 좋다."와 "제 부인과 함께 왔습니다."의 두 표현에서 전자는 '붉게'라는 단어가 통사적 적절성을 어긴 것인 반면, 후자는 '부인'이라는 단어가 잘못 사용된 것이다. 이 경우 전자에서는 통사적 성분 '붉게'를 '붉은'으로 바꾸면 문법성이 회복되며, 후자에서는 어휘적 성분 '부인'을 '아내'나 '집사람'으로 바꾸면 적절성이 확보된다. 요컨대, 단어의 정확한 사용이란 단어를 규범과 어법에 맞게 구성하고, 의미 및 화행적(話行的) 용법에 맞도록 부려 쓰는 일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는 일이야말로 언어생활을 바르게 하는 기초가 된다.

1. 핵심이 되는 문장(들)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2. 핵심 단어들을 연결해 간략하게 도식화 해 보세요.(형식은 자유)

대학교 1·2학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대다수 학습자들은 대학에 갓 입학한 학생들이었다. 평균에서는 고등학교 학습자들과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자료A의 핵심문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표준편차가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결과보다는 적은 것으로 드러나, 평균을 중심으로 다소 균일하게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료A와 자료B의 결과에서, 고등학교 학습자들과 마찬가지로 자료B의 경우 문단 구분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자료B의 핵심어 파악 결과는 문단 구분되지 않은 쪽이 더 나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다.

앞선 중·고등학교 학습자들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자료B의 핵심 문장 줄긋기에서 2점을 받은 학습자의 언어 수행 결과를 대상으로 한다. <그림 3>과 같은 결과 양상을 보였다.

<그림 3>에서는 기본적인 핵심 문장들에는 줄긋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선 지적한 바와 같이 개념 정의에 대한 부분이 불필요하게 포함되어 있고, 특히 정확한 단어의 사용이 지니는 의미가 올바른 언어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지 못하고 있는 결점이 드러난다. 이는 핵심어의 도식화 양상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상의 학습자들의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두 가지 연구가설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가설1인 "문단 구분 여부가 읽기에 차별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는 유의미한 것으로 수용된다. 학습자들의 수행 결과를 간략하게 재구성해 보면 <표 6>과 같다. 핵심어와 핵심문장 파악이 모두 문단 구분 여부에 따른 읽기 결과의 주요 변수였기 때문에, 결과에서는 두 변수의 수치를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평균에 제시한다.

〈표 6〉 문단 구분 여부에 따른 읽기 결과

	문단 구분됨						문단 구분 안 됨					
자료	자료A			자료B			자료A			자료B		
대상	중	고	대	중	고	대	중	고	대	중	고	대
평균	1.7	2.45	2.4	1.75	2.5	2.55	1.3	2.1	2.0	1.4	2.35	2.6
전체 평균	2.18			2.27			1.80			2.17		

<표 6>에 드러난 바와 같이 문단 구분 여부에 따른 읽기 평가 점수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자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전체적인 평균값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났다.[12] 다만 자료B의 경우 특정 학습자들에 대해서 문단 구분되지 않은 글이 오히려 점수가 높게 드러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전체 평균값은 분명 문단 구분 여부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특히 자료A의 경우는 그 수치가 자료B에 비해 그 격차가 더 크다. 엄밀한 통계 검증 과정을 통해 드러난 가설 검증의 결과에서, 자료A의 경우는 문단 구분 여부에 따라 읽기 결과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고 있다. 아울러 자료B의 경우도 문단 구분 여부에 따른 읽기 결과의 차이에 대한 유의미성이 드러남을 알 수 있었다.[13]

물론 자료A에서 비해 자료B의 경우는 그 수치가 상당한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는 즉 자료A보다 자료B의 덩잇글이 더 쉽게 학습자들에게 읽

12) 엄격한 의미에서 전체 평균값은 모든 학생들의 점수를 통해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문단 구분 여부와 자료에 따른 평균값을 재차 평균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따라서 일정 부분의 오차는 엄밀하게 고려하지 못했다.

13) 자료 A에 대해 문단 구분 여부에 따른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2 sample-z 검정을 해 보면 검증 통계량의 값은 $z = 2.57$ 이며 이 값은 기각치인 $z_{0.025} = 1.96$ 보다 크므로 문단 구분 여부가 점수에 차이가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자료 B에 대해서도, 그 차이가 약간 있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혔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즉 문단 구분 여부에 상관없이 읽기 수행의 결과가 비슷한 정도로 학습자들에게 덩잇글이 인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점이 통계 수치상으로 유의미하여 가설을 기각할 정도는 아니다.

연구가설2는 "학습자의 수준과 연령이 높을수록 문단 구분과 읽기수행 간의 상관관계가 줄어들 것이다"인데, <표 7>과 같이 학습자들의 인식 결과를 재구성할 수 있다.

〈표 7〉 수준과 연령에 따른 문단 읽기 결과

대상	중2·3				고2				대1·2			
자료	자료A		자료B		자료A		자료B		자료A		자료B	
문단 구분	구분 됨	구분 안됨	구분 됨	구분 안됨	구분 됨	구분 안됨	구분 됨	구분 안됨	구분 됨	구분 안됨	구분 됨	구분 안됨
평균	1.7	1.3	1.75	1.4	2.45	2.1	2.5	2.35	2.4	2.0	2.55	2.6
평균 차	0.4		0.35		0.35		0.15		0.4		-0.05	

<표 7>에 드러난 바와 같이 자료A의 경우, 고2는 약간 차가 줄어들었지만, 중학교와 대학교 학습자들의 경우는 평균의 차가 동일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문단 구분 여부의 읽기 결과가 학습자들의 연령에 따른 읽기 수행 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자료B의 경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값이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대학교 학습자들의 경우는 오히려 문단 구분이 되지 않은 글의 읽기 결과 점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나 문단 구분과 읽기 수행의 연령 및 수준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14]

14) 연령에 따른 문단 구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자료별 문단 구분 여부에 따른 점수 간 차이를 활용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자료 A에 대해서는 검정통계량의 값이 $\chi^2 = 19.91$ 로 유의수준 5%에서 기각치인 9.488보다 크므로 연령에

따라서 이 결과는 위의 연구가설1의 결과와 달리 자료의 특성에 따라 문단 구분이 읽기에 결과를 미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글의 난이도에 따라 문단 구분 여부가 읽기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2. 교육상 의의

문단은 그 자체로서 완결된 의미덩이다. 하지만 이는 덩잇글이라는 전체를 상정했을 때 보다 분명하게 그 속성이 부각된다. 즉 문단은 부분과 전체의 속성을 동시에 지니는 단위이기 때문에, 이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읽기 과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문단 구분 여부가 읽기에 깊이 있게 관여되는지의 여부를 핵심어와 핵심문장 파악을 통해 조사하고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두 가지 정도의 교육상 의의를 구성할 수 있다.

첫째, 문단의 구분이 읽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조사결과에서 유의미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덩잇글이 지니는 여러 변수에 따라 문단 구분 여부가 읽기에 끼치는 영향이 달리 드러날 수 있는데, 특히 자료B는 자료A에 비해 문단 구분 여부가 읽기에 끼치는 영향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통계 수치상으로 유의미할 정도는 아니지만, 덩잇글의 속성에 따라 문단 구분 여부가 읽기 과정에 달리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즉 모든 글에서 문단의 구분이 읽기 과정에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

따라 문단 구분 여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반해 자료 B의 검정통계량은 $\chi^2 = 2.72$ 이므로 유의수준 5%에서 연령에 따른 문단구분 여부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료A의 경우는 상관관계가 줄어들고 있지 않으며, 자료B의 경우는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서는 문단 구분에 따른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갈래의 글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의 과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학습자들에게 문단을 중심으로 핵심어와 핵심문장을 찾는 전략이 덩잇글을 이해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다루어지지만, 정작 문단 구분이 읽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 유의미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본고의 결과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문단 구분 여부가 읽기에 유의미한 관계를 지니지만, 글의 속성에 따라 그 차이는 다소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무조건 문단을 구분해서 그에 부합하게 읽게 하는 식의 전략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앞선 자료들에서 보듯이, 담화 표지[15] 등에 의해 문단 구분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내용상으로 의미덩이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자료B의 경우는 문단 구분 여부가 읽기에 끼치는 영향 관계가 비교적 적은 수치로 드러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교수·학습 과정에서 문단 구분 여부를 명확하게 하여 다룰 글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글 등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둘째, 문단 구분에 따른 읽기의 결과가 학습자의 수준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연관 관계가 줄어들 것이라는 가설은, 덩잇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리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읽기 수준이 높은 학습자들의 경우 문단의 형식적인 구분에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배경지식이나 여타의 읽기 전략을 구사하여 문단 구분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16]

---

15) 가령 자료B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 요컨대"와 같은 명시적인 표지가 문단을 구획하는 데 필연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아울러 학습자들은 이해의 과정에서도, 통계 검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주요한 변수로 간주하고 있다. 물론 자료A에서도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과 같이 담화 표지가 문단 구분에 기여하고 있지만, 학습자들이 이를 명확하게 문단과 관련하여 이해의 주요한 변수로 다루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하지만 연구가설2에 토대한 조사결과에서, 자료에 따라 그 유의미성이 달리 나왔다. 자료A의 경우는 학습자들의 연령이나 수준에 상관없이 문단 구분에 따라 읽기의 결과가 차이가 있었고, 자료B의 경우는 연구가설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단 구분의 여부와 읽기의 관계가 일정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일부 기존 연구에서는 언어 수행 수준이 높으면 문단 구분이 읽기 과정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결론내리고 있는데, 이는 덩잇글의 속성에 따라 달리 접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보다 많은 갈래의 덩잇글을 통해 문단 구분의 유의미성이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교육현장에서는 덩잇글의 가독성에 따라 문단 구분 여부를 조작하여 학습자들에게 읽히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어려운 글일수록 문단 구분 여부는 학습자들에게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17]

Ⅳ. 마무리

본고는 문단 구분 여부에 따른 학습자들의 읽기 수행 결과를 두 가지

16) 김정호(1990)에서는 학습능력이 높은 피험자들일수록 문단나누기의 여부에 관계없이 덩잇글에 대한 기억의 정도가 좋다고 실험결과를 통해 언급하고 있다.

17) 두 편의 글을 모두 읽은 학습자들이나, 이를 평가한 교사들의 공통된 견해가 자료A가 자료B에 비해 그 내용이 다소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내용상으로 살펴보면, 자료A의 경우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들을 바탕으로 과학적 지식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들이 바탕이 되고 있고, 자료B의 경우는 명시적인 담화 표지를 바탕으로 하여 단어 사용에 대한 일상적인 개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연구가설을 통해 검증하였다. 언어 수행 수준과 연령을 달리하는 중·고·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두 편의 읽기 자료를 문단 구분의 여부에 따라 나뉘고, 그 유의미성 여부를 일정한 통계 절차를 통해 검증하였다.

첫째, 연구가설1인 "문단 구분 여부가 읽기에 차별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는 유의미하게 수용되었다. 즉 문단 구분 여부가 읽기에 차별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 결과는 보여주었다. 다만 자료에 따라 그 수치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연구가설2는 "학습자의 수준과 연령이 높을수록 문단 구분과 읽기수행간의 상관관계가 줄어들 것이다"는 자료의 속성에 따라 그 유의미성이 달리 나타나 가설은 기각되었다. 따라서 보다 많은 덩잇글과 학습자들을 확보하여 그에 대한 검증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두 가지 연구가설을 통해 문단 구분 여부가 읽기에 차별적인 영향을 주지만, 언어 수행 수준이나 연령에 따른 차별성은 통계 절차를 통해 유의미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하지만 본고가 동일 연령대에서의 학습자들의 언어 수행 수준을 고려하지 못했고, 또한 여러 가지 연구 과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다양한 덩잇글을 조사대상으로 삼지 못한 점이 한계로 남는다.*

참고 문헌

김정호·김선주(1990), 「글의 삽입표제와 구획나누기가 글의 회상에 미치는 효과」, 『실험 및 인지』 제2권, 한국심리학회, pp.45-56.

* 이 논문은 2010. 4. 27. 투고되었으며, 2010. 5. 17. 심사가 시작되어 2010. 5. 28. 심사가 완료되었고, 2010. 6. 1.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음.

김정호(1993), 「사전문장과 문단나누기가 설명글의 기억에 미치는 효과」, 『실험 및 인지』 제5권, 한국심리학회, pp.205-211.

김지홍(2010), 『언어의 심층과 언어교육』, 경진.

정달영(1997), 『국어단락 이론과 작문교육』, 집문당.

정제한(2002), 「국어 문단의 구조와 유형에 대한 연구」,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Baumann, F. James(1986), *Teaching main idea comprehension, Newwark*, Delaware :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문선모 역(1995), 『중심내용의 이해와 수업』, 교육과학사.

Wang, Danhua(2009), "Factors affecting the comprehension of global and local main idea", *Journal of College Reading and Learning* 39, pp.34-52.

Koen, F., Becker, A., Young, R.(1969), "The psychological reality of the paragraph",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8, pp.49-53.

Ji, Shaojun(2008), "What do paragraph divisions indicate in narrative texts?", *Journal of Pragmatics* 40, pp.1719-1730.

■국문초록

문단 구분과 읽기의 상관관계 연구

서종훈

본고는 두 가지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문단 인식에 대한 자각의 문제를 다루었다. 전체 조사는 학습자의 연령에 따른 수준차를 고려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두 가지 조사 자료에 대해 일정한 통계 절차를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문단 구분 여부가 읽기에 차별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수용되었고, 학습자의 수준과 연령에 따른 문단 구분과 읽기의 상관관계 여부에 대한 연구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는 문단 구분의 여부가 읽기와 관련을 맺는다고 할 수는 있지만, 다소 덩잇글의 속성에 따라 그 상관관계가 달리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는 드러났다.

문단 구분은 읽기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들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본고의 조사는 덩잇글 두 편이라는 제한된 조사 자료에 한정되었고, 아울러 학습자들의 연령에 따르는 수준을 엄격하게 고려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남는다.

[주제어] 문단 구분, 읽기, 핵심문장, 핵심어

■ Abstract

A Study of Relation between Paragraph Division and Reading

Seo Jong Hoon

This paper treated the paragraph cognition awareness of subjects with two hypotheses. The total survey selected subjects of middle, high, and university, and verified hypotheses with standard statistical about two datum.

The hypothesis of the relation between paragraph division and reading was admitted. But the hypothesis of the relation between paragraph division and reading according to age and level of subjects was rejected. The relation between paragraph division and reading was closed. But the survey explained that a result was different according to text property.

The paragraph division was a variable that had influenced on reading. But the survey was limited with two texts, and not considered strictly according to age and level of subjects.

[Key words] paragraph division, reading, topic sentence, keyword